



5월 11일



"응애응애!" 이삭의 집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큰아들은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 불렀고,  
 작은아들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 불렀어요.  
 두 형제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드리는 일을 했어요.



사냥을 다녀온 에서는 배가 몹시 고했어요.  
"아이 배고파,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야곱이 팔죽을 끓이는 냄새였어요.  
"야곱, 내게 팔죽 한 그릇을 주렴. 무척 배가 고파."  
순간, 야곱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형, 그럼 내 팔죽과 큰 아들의 축복을 바꾸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에서는 큰아들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자. 어서 팔죽이나 다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팔죽 한 그릇에 그만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이삭은 나이가 들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삭은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맛있는 요리를 해 오렴.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해 주마."

리브가는 이 말을 엿듣고 야곱을 불렀어요.

"염소를 잡아 오너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테니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형 대신 축복을 받거라."





야곱은 에서처럼 꾸미고 이삭에게 갔어요.

"아버지, 저 에서예요. 이 음식을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눈이 나빠서 야곱을 에서로 여기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결국 약속대로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중에 야곱이 큰아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갔어요.

# 생각하는 아이

## 조심해요! 소중한 거예요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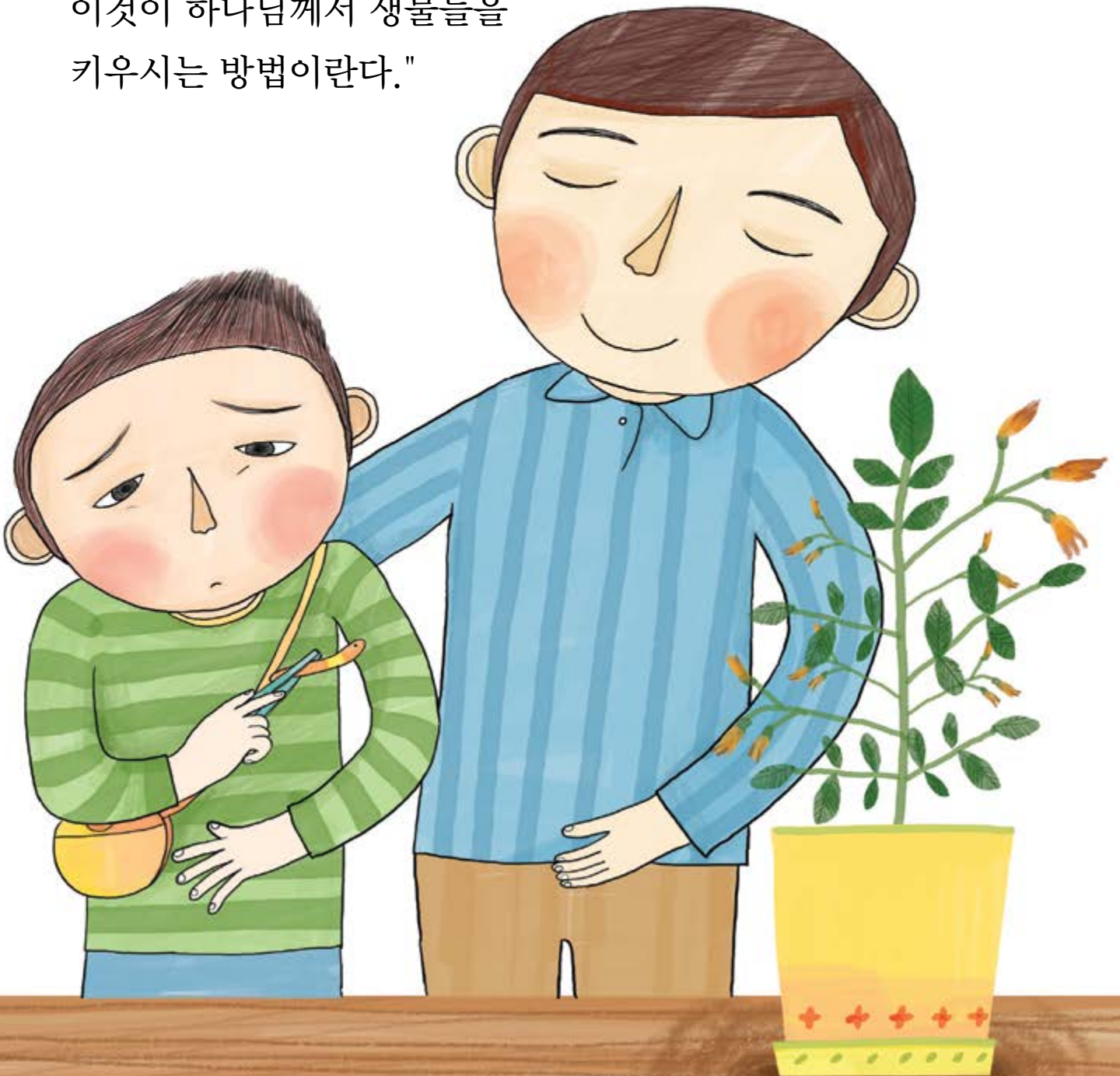
화분 옆에 꼬물꼬물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아빠, 화분에서  
지렁이가 나왔어요!"

남우는 너무  
징그럽고  
무서웠어요.



"에잇! 밖에다 내다 버려야지." "안 돼, 지렁이는 소망이가 잘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야." "이 징그러운 지렁이가요?" "그래, 지렁이는 소망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에 영양분을 더해주지.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다 있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키우시는 방법이란다."



# 즐거은 활동

야곱과 에서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끼리 연결해 보아요.



몸에 털이 많아요.



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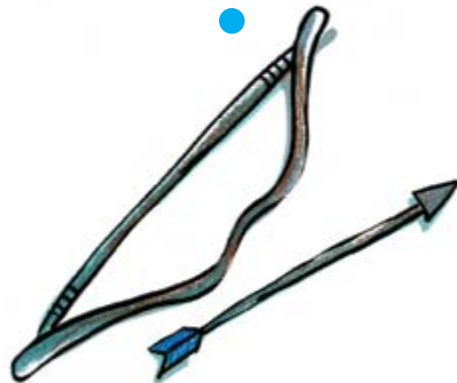
팥죽을 끓여요.



집안 일을 잘해요.



야곱



사냥을 잘해요.



실선을 오려서 접은 뒤에 세우세요. 야곱과 에서에게 알맞은 그림을 오려 붙이세요.

- 자르는 선 \_\_\_\_\_
- 접는 선 - - - - -



에서가 가진 것을 붙이는 곳



야곱이 가진 것을 붙이는 곳



큰아들의 축복



팔죽



활



빗자루





# 마음속 암송

## 따라 쓰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세기 28장 15절

##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